

# 더블스타 회장 “볼보처럼 금타도 독립보장”

금호타이어 인수에 나선 더블스타 차이웅현 회장이 22일 일명 ‘떡튀’는 있을 수 없으며 한국 법인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 금호타이어 매각에 극적인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된다.

차이웅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가진 ‘산업은행-더블스타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의 발전과 설비,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시장 경쟁력을 위해 한국에서 금호타이어가 충분한 시장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하는 모델 방식으로 금호타이어 본사는 한국에 두고 독립운영할 것임을 보장했다.

차이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는 목적

##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최대 분수령 주목

### 노조 중요성 역설...광주서 만남도 희망

은 통제하거나 소유하려는 게 아니다”며 “협력하고자 하는 파트너가 되려는 목적으로 인수를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호타이어의 뿌리는 분명 한국에 있다”며 “중국에는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풍성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금호타이어라는 나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뿌리를 더 강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차이 회장은 금호타이어 노조의 조속한 만

남도 희망했다.

그는 “노조는 회사의 발전과 미래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라며 “노조와 협력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블스타의 이념과 철학은 직원이 가장 우선”이라며 “금호타이어가 노조와 직원들과 체결한 합의에 대해, 기존 합의든 지금 체결하고자 하는 합의든 아니면 미래 합의든 모두 다 존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차이 회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광주로 내려가 노조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금호타이어 사태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해외매각 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던 노조의 입장도 바뀌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차이 회장과 만난 날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근 불거진 더블스타의 재무상태와 고용보장 두가지 측면에 대한 더블스타 측 자료를 요청해 받아본 뒤 차이 회장과 면담을 결정하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

한편,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646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

다. 이 유상증자가 실현되면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지분을 45%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이와 별도로 시설자금 용도 2000억원을 투입하고 최소 5년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오는 30일까지 더블스타의 투자유치가 무산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채권단이 벌인 실사 결과 금호타이어의 계속기업 가치는 4600억원으로 청산가치 1조원의 절반에 불과했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국내 공장은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미애 기자



한전KDN전력IT연구원은 22일 광주과학기술원연구원과 인공지능분야 기술 융합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인공지능 기술융합·산업발전 ‘맞손’

### 한전KDN-광주과학기술원 업무협약

한전KDN이 인공지능 분야 기술융합을 포함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 대학과 힘을 모은다.

한전KDN전력IT연구원은 22일 광주과학기술원 402호 회의실에서 광주과학기술원연구원과 인공지능분야 기술 융합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에너지ICT 분야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에너지ICT 분야 인공지능 솔루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인공지능 전문인력 육성 및 교류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의 업무에 상호 협력하고,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공지능 분야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

고 전력ICT와 인공지능의 융합연구와 솔루션 개발 연구에 집중 주력할 예정이다.

허호길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전KDN과의 우수한 인적·연구 교류를 통해 인공지능 중심 과학기술 캠퍼스 및 창업타운 조성을 위한 힘찬 도약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AICBM 기술 개발도 선도하고 있다. 1992년 설립 이래 발전부터 급진,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력계통 전 과정에 있어 첨단 전력ICT기술을 적용해 전력계통 감시, 진단 및 제어, 전력사업 정보관리 등의 토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 중기부 광주전남청, 지원기관 협의회

### 소상공인 애로 해결 개편 실질적 도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22일 21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원기관장들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면서 기관 간 협조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 광주전남청 관계자는 “지원기관협의회 운영방식을 바꾸게 된다는 흥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방청이 지역 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

발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참석한 기관장들은 “오늘을 기회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애로 해결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중기부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기관 간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협의회가 현장의 애로·규제 개선 등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형동 기자

## 미국 기준금리 0.25%p 인상

### 파월호 첫 FOMC...10년만에 한국 금리 추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향후 긴축 행보에 대해서는 다소간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을 강화하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레토릭’을 내놨다.

연준은 워싱턴DC 본부에서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점입 재닛 옐런 의장 체제였던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다. 지난달 취임한 제롬 파월 의장으로서

는 주재한 FOMC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이른바 ‘제로금리’(0.00~0.25%) 이후로는 6번째 금리 인상이기도 하다. 그동안 연준은 2015년 12월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과 지난해 3월·6월·12월까지 모두 5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로써 모두 0.25%포인트씩 금리를 조정하는 일명 ‘베이비스텝’으로, 2년여 동안 연방기금금리는 0.00~0.25%에서 1.50~1.75%로 1.5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번 FOMC를 기점으로, 미국의 정책 금리 상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를 웃돌게 됐다. 한미 정책금리

가 뒤집힌 것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만, 관건은 연준의 매파적 색채가 강화될 조짐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이번에 공개된 점도표에서 연준 지도부는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4차례 인상론의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2차례에서 3차례로 상향 조정했고, 오는 2020년에는 두 차례 인상을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7차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0.25%포인트씩 인상을 가정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3.25~3.50%까지 1.75%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연합뉴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22일 (사)강진군쌀조합 도암공장 광장에서 벼 직파재배 및 농작업대행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

## 전남농협, 벼 직파재배 발대식

### 농촌고령화...직파·방제 등 농작업 대행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22일 (사)강진군쌀조합 도암공장 광장에서 박태선 본부장, 전남남도 전종화 농업축산식품국장, 안강진원 강진군수, 한국직파농업협회 김재규 이사장, 농협 시군지부장·조합장, 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벼 직파재배 및 농작업대행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고령화되고 있는 소규

모 조합원에게 영농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벼 직파재배 및 경운·균평·직파·방제 등 일괄 농작업 대행에 대한 영상 시청과 함께 적극 추진을 다짐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더불어,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농업인의 농기계소회수리를 시작하는 농협소회수리차량 환승식도 함께 실시했다.

전남농협은 2014년부터 7개농협, 53

농가, 83ha로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2017년말 43개 농협, 903농가, 2,478ha로 확대했다. 올해는 5,000ha까지 넓힐 계획이다. 농작업 대행은 2017년말 경운·균평·직파·방제작업을 대행하고 있는 농협은 93개 농협이다.

박태선 본부장은 “농업·농촌은 갈수록 고령화돼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등 농업인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많다”며 “영농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벼 직파재배와 농작업대행을 확대해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KJ카드, 광주기아 입장권 할인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018년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입장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22일 밝혔다.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 광주은행 KJ카드를 결제하면 성인 본인에 한해 2,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을 맞아 광주카드 고객들이 즐거운 경기관람을 할 수 있도록 입장권 할인 서비스를 실시했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 함께 기아타이거즈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상생기금 36억 출연

### LH, 일자리 공공성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의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에 36억원을 출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출연금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받은 성과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해 마련한 것이다. 이 금액은 생산연대기금에 출연한 기관 중 최대 규모다.

LH는 이날 서울지역본부에서 박상우 사장과 LH 3개 노조위원장, 공공상생연대기금 이병훈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파견 및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노사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농협은행-더루프 업무협약

### 블록체인 연구·이용 활성화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은 지난 21일 핀테크업체인 더루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연구 및 프로젝트, 오픈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API, 블록체인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세계최대 블록체인 연합체인 R3에 가입해 블록체인을 금융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 신보-우리은행 업무협약

### 대·중기 동반성장 지원

신용보증기금과 우리은행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신보는 해당 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3년간 연 0.2%포인트 차감하고 우리은행은 대출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우리은행 동반성장펀드에 참여한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 7천 500여곳이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상생협력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해 자동화 생산설비 인상적”

### 쑤시엔위 중국총영사 보해 장성공장 견학

쑤시엔위 주광주 중국 총영사가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보해양조의 장성공장을 견학했다.

보해양조는 22일 쑤시엔위 주광주 중국 총영사를 비롯한 영사관 관계자들이 보해양조 장성공장을 방문해 임지선 대표의 안내로 생산라인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쑤시엔위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자동화된 생산설비 인상적이며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보해양조가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쑤시엔위 총영사와 임지선 대표는 면담을 갖고 중국 시장 내 매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해양조는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온라인 거래업체인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JHE글로벌과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맺어 오프라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보해는 JHE글로벌과 공동으로 인쇄주, 복판은 부러더, 부러더 소다 등 대표 제품을 상하이와 베이징, 지린성, 광저우 등 중국 전역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하 253m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암반수로 만든 보해양조 제품의 생산과정을 보기 위해 국내외 소비자들께서 지속적으로 장성공장을 찾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인쇄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공장견학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이사과 쑤시엔위 주광주 중국 총영사가 보해양조 장성공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